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41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강신욱 단국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인터뷰

"뱃속까지 체육인, 제41대 대한체육회장 도전장"

"사랑의 매,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걸로 알았다"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야 한다"

"체육계 문제, 잘 알아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민낯과 시사점

"지역 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사태에 천안시 수수방관"

"아동 폭행한 축구 감독,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 정황"

"전남체육회, '흥기폭행·폭언' 강진체육회장 중징계 요청"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국 체육이 나아갈 방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대한체육회장 도전’ 강신욱 “사랑의 매?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다”

“제 삶이 뻗속까지 체육인이란 걸 보여드릴 겁니다.”

단국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강신욱(64) 교수의 얘기다. 강 교수는 내년 1월 18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체육계에 몸담은 지 45년. 열악한 지도자 처우 개선, 스포츠 폭력·성폭력 등 반복되는 문제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는 강 교수.

강 교수가 자신을 ‘뻗속까지 체육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유가 있다. 강 교수는 학창 시절 학교 대표로 축구 대회에 출전했다. 짧지만 중학교 야구부 생활을 하기도 했다. 대학(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 시절엔 하키 선수로 뛰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체육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강 교수는 체육교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전농여중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하키부 감독을 맡았다. 198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강단에서 섰을 때도 변함없이 체육을 가르쳤다. 엠스플뉴스가 ‘뻗속까지 체육인’ 강 교수를 만났다.

-강신욱 교수 “학창 시절부터 운동은 내 삶의 일부였다”-

11월 5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웃음). 체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체육계 현장에서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체육계에 몸담은 지 45년째입니다. 누구보다 체육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대학에서 보고 들은 것은 극히 일부일 수 있어요. 스포츠 종목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야구, 축구, 농구 등 구기 종목부터 태권도, 레슬링, 유도 등 개인종목까지 아주 다양해요. 특히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제가 한참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던 시절과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참’이라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옛날 이야기 좋아해요(웃음)? 얘길 들으면 강신욱이란 사람은 뻗속까지 체육인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웃음). 어릴 때부터 운동을 아주 좋아했어요. 방과 후 친구들과 공차는 게 일상이었죠. 축구부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학교 대표로 지역 대회에 출전하는 등 운동에 소질이 있었어요.

체육교사 시절 학생선수들에게 하키를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키는 대학 입학 후 처음 접했어요. 우리 어렸을 땐 축구, 야구, 복싱이 최고였습니다. 초등 4년 땐 ‘손야구’라는 것도 했어요. 서울시 대회에 출전해 우승도 했다니깐. 학창 시절부터 운동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다음 장 계속

운동선수 할 생각은 안했습니까.

왜 없었겠어(웃음). 중학교 1학년 때 야구부에 들어갔어요. 운동장에서 야구복 입고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이 아주 멋진 거야. '무조건 야구 해야겠다'고 다짐했지. 감독을 직접 찾아가서 '야구 하고 싶다'고 했어요(웃음). 흔쾌히 수락해주시더라고.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문제요?

첫날부터 엄청나게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처음 야구부에 들어온 중학교 1학년 애가 뭘 알겠어. 야구부 내에서의 폭력은 계속됐어요. 감독, 코치, 선배들에게 돌아가면서 맞았죠. 이유가 있긴 했어. 연습 때 분위기가 안 좋았다, 모이는 시간이 살짝 늦었다 등. 1주일 만에 야구부에서 나왔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뭘니까.

야구부 감독이 하는 말이 "네가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을진 몰라도 나갈 땐 아니"라고 하는 거야. 동기들 포함해 야구부 전 인원한테 맞았어요. 야구부 떠올리면 맞은 기억뿐이야(웃음).

고교진학을 축구 특기자로 할 뻔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공을 잘 찼으니까.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체육 선생님이 불렀어요. 선생님이 "일정 금액을 주면 서울 모 고등학교 축구부에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돈이 없어서 못 갔어(웃음). 우리 땀 고교 진학할 때 시험이 필수였습니다. 시험으로 평가한다면 최우수 성적으로 축구부가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돈 내고 고교 진학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축구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부와 운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선수도 학생인데 공부와 운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학창 시절부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지.

학창 시절부터 체육계의 여러 문제를 경험한 셈이군요.

하키 선수, 지도자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1981년 병역(ROTC)을 마치고 전농여중(전일중학교의 전신)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 많았지. 학생들 가르치는 것부터 소통하는 것까지 쉬운 게 없었죠. 대학원 입시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체육은 늘 좋더라고(웃음).

-강신욱 교수의 고백 "사랑의매,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다"-

전농여중 체육 교사로 생활하면서 하키부 감독을 맡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학생선수들 가르치던 시절이에요. 하키가 유망한 종목은 아니니까 학교 지원이 많지 않았어요.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낼 때까지 아주 힘들었죠. 하키부엔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선수가 많았어요. 하키로 장학금 받고, 고교 진학해야 하는 친구들이었죠. 내 모든 걸 걸고 가르쳤습니다.

성적 부담이 컸을 듯합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1982년 겨울 처음 하키부 감독을 맡았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학생선수들을 많이 때렸어요. 그때만 해도 학생선수를 위해 때리는 건 줄 알았어요. 학생선수들을 강하게 다그치고 가르쳐야지만 그 아이들의 장래가 밝을 수 있다고 믿었죠. 실제로 창단 6개월 만에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바꾼 한 장면이 있어요.

다음 장 계속

한 장면이요?

전농여중이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하키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팀이 전농여중과 연습경기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팀과 연습경기할 때였어요. 우리가 초반부터 크게 앞섰죠. 경기 중이었습니다. 상대 감독이 자기 팀 선수를 부르더니 뺨을 때리는 거야. 사랑의매가 흔한 시절이지만,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 매를 들진 않았거든. 그런데 그런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충격이었지. 학생선수를 때리는 그 감독이 아주 추해 보였어요. 동시에 지난 시간을 돌아봤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저 감독의 다른 점이 뭐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당시엔 학생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사랑의매를 든다고 확신했습니다. 최소한 고교 진학시 등록금 면제는 받아야 하니깐. 네, 제가 틀렸던 거예요. 학생선수를 위해 사랑의매를 든 게 아니야. 온전히 나를 위했던 거지. 다른 지도자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싫었던 겁니다. 수천 번 반성하고 다짐했어요. 다신 학생선수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겠노라고. 그 이후 사랑의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용산고 하키부 감독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교사 시절 사랑의매란 이름의 폭력을 행사한 걸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교사에서 교수로 변신한 이유가 있습니까.

1980년대 전국대회에 출전해 성적을 내면 표창을 받았습니. 하키부를 잘 지도하면 장학사가 되고 교장까지 꿈꿀 수 있었죠. 전농여중 하키부를 6개월 만에 전국대회 준우승으로 이끌었어요. 이후에도 꾸준히 성과를 냈습니다. 장학사 0순위였죠. 문제는 용산고 하키부 감독 시절에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용산고 하키부는 동창회 지원으로 운영됐어요. 용산고 운동부 졸업생들이 지원금을 내는 겁니다. 전농여중과 운영 방식이 달랐죠. 용산고 동창회 한 분이 하키부 인원을 줄이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죠. 당시 용산고 하키부가 27명이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민은 하키부 학생들이 하키를 관두면 무엇을 하느냐였어요.

고민이 컸겠군요.

1980년대엔 고등 교육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당시 하키부 학생들의 집안 사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키를 관두는 순간 체육 특기자가 받는 등록금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은 다음 문제였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요. 지원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버티겠다고 했죠. 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가 대학원 졸업 시기였어요. 학생들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순 없을까 고민하던 중이었죠. 결국 여러 고민 끝에 교사를 그만두고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어떤 사람인지 늘 생각해야 한다” -

1989년부터 단국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 시절과 크게 바뀐 건 없었어요.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엔 변함이 없었죠. 이전보다 좀 더 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웃음). 대학 강단에 처음 선 날부터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육 지도자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인품에 깊이 관여해요. 우린 학창 시절 선생님에게 뭘 배웠는지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확연히 기억해요. 과거 가르쳤던 선수에게 내가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님이로 기억된다면 날 그렇게 기억하는 선수도 좋은 시민,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로 성장했을 확률이 크다고 봐요.

다음 장 계속

평생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체육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체육계엔 제가 하키부 감독 시절 만난 제자들처럼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분이 아주 많아요. 우선 지도자들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지도자가 생계를 고민해요. 건강한 체육계를 만들기 위해선 체육 지도자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어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네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니까.

국민을 위한 대한체육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한체육회란 특수법인을 만들어준 이유는 명확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란 겁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해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운동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것. 대한체육회가 많은 분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공약에선 '100세 시대' 체육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수들의 은퇴 후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들이 은퇴 후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 "체육계 문제 해결? 지도자 처우 개선이 시작이다" -

교육이 중요하다?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아이 내 돈 내고 운동시키겠다는데 왜 자꾸 교육(공부)를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학생선수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 소양 교육을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사회 어느 분야에 데려다 놓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거죠.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사회에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 생활하면서 쓰는 용어와 사회에서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운동하면서 쓴 단어는 제한적인데 사회는 아니란 거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누구나 축구의 손흥민, 야구의 류현진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순 없어요. 성공하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제2의 삶을 항상 대비해야 하죠. 대한체육회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공약에서 "임기(4년)내 폭력 성폭력 문제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체육계 폭력 성폭력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없앤다는 게 가능합니까.

내뱉은 말 지키지 못하면 책임져야죠. 더 많은 공약을 내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 근절이에요. 자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나 대학 역시 폭력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 대학에선 학생들에게 막말하거나 성적 농담을 던지는 교수가 많았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확 줄었어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시스템이요?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면 1년에 최소 두 번 선수조사를 할 겁니다. 대한체육회, 프로연맹 등에 등록된 초등선수부터 프로까지 전 선수를 조사할 거예요. 번거롭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휴대전화로 조사를 할 거예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겁니다. 조사 결과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거고요.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 남자스포츠에서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가 여자, 장애인 체육계로 넘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를 기관장에게 통보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이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려야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잘못된 사람을 영원히 내쫓는 거예요. 대신 체육계에 발 디딜 수 없게 추방하는 거죠. 대중이 용서하지 못할 문제를 저질렀다면 그래야 합니다. 다만 모두를 그런 방식으로 내쫓을 순 없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잘못에 따른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되는 체육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해요. 전 원칙주의자입니다. 엄격해요. 다만 그 엄격을 가장해서 지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막아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대한체육회의 역할이라고 봐요.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교수님이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다고 해서 대한체육회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순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공약이죠. 지도자들의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대부분이 1년 계약직이예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신입과 20년 차 베테랑의 봉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순 있어야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같은 일이어선 안 됩니다.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급료 체계를 갖춰야 해요.

2020년 대한체육회가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4천억 원입니다. 예산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디선가 예산을 줄이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담뱃세에 보면 건강증진목적기금이 있습니다. 많은 체육계 지도자가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죠. 그런데 혜택은 없어요. 체육계의 정당한 몫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기만의 지도 철학을 펼칠 수 있고 학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는 환경 반드시 만들 거예요.

4년 후 교수님이 어떤 체육계를 꿈꾸고 있습니까.

선진형 스포츠 강국. 운동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운동하는 게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겁니다. 미국처럼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주 종목 하나씩은 가지고 사회로 나가 평생 함께하는 시스템.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니다.

체육계에 45년 몸담았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교수님이 평가하는 강신욱 교수는 어떤 체육인입니까.

과분한 대접을 받고 산 체육인입니다(웃음). 학생선수들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체육계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감사한 분을 아주 많이 만났어요. 이젠 제가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꼭 체육계와 함께했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issports@mbcplus.com



천안시장애인체육회 비하발언·장애인 차별 등 재발 방지 호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동과 체육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천안시청 현관 앞에서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권유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 등이 가해자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과 장애인 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또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점검 실시와 점검 결과, 조치계획 공개, 인권전문가 등을 포함한 조사단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해당 사안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발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월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인사위원이 외부 인권전문가가 전혀 없는 내부 이사진으로 구성돼 피해자들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4회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속한 개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6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 차별건과 갑질·괴롭힘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가름하게 된다"며 "현재 관련 팀장은 업무 배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회에 지난해 11월 장애인 비하발언이 신고 접수돼 12월 장애인체육회 자체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라 비하발언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를 권고한바 있다"며 "4월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분하고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 비하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 접수돼 이번 인사위원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천안시 부시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noon38@paran.com



[단독] '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아동 폭행'을 저지른 유소년 축구 감독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2019년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는 그해 4월 공정위원회를 열고 A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공정위원회 규정상 선수에 대한 폭력은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제명까지다. 피해자 측은 징계가 약하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재심을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것을 파악했다. 2020년 3월 A가 지도하는 클럽의 훈련일정 계획표에 담당 지도자로 A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다. 2019년 7월 공식경기에는 A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 후반 A는 교체 투입을 앞둔 선수 한 명의 허리를 감싼 채 사이드라인 바로 앞까지 함께 왔다. 이후 그는 팀 벤치로 걸어갔다. 이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다.

공정위원회 규정 중 자격정지를 보면 '일정 기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기간 등록이 불가됨(팀 벤치·선수대기실·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이라고 나와 있다. 또 '자격정지의 경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도자·선수·임원·심판·중개인 등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인원의 한계도 있고, 매번 지켜볼 수도 없다. 일선의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관리와 감독이 힘들다. 대회가 아닌 훈련에서 얼마만큼 개입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중 활동이 적발되면 추가징계가 불가피하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징계 중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 금지 및 관련 주의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17개 시도협회 및 일선 등록 팀에 공문을 보냈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유형별 징계기준에서는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벤치 착석 및 경기장 외 지시행위 포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지도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를 받은 선수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다음장계속

대한체육회 관계자 역시 "자격정지는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대회, 제도권 내에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설 클럽 지도 등의 부분은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축구협회에서 먼저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A에 대한 조사를 한 번 실시했다. 아직 추가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A의 자격정지는 지난 10월로 끝났고, 축구협회에 다시 지도자로 등록한 상태다.

축구협회는 "A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다음에 이 건에 대한 공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조사 중이라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는 본지와 통화에서 "나는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이다. 감독으로 지도하지 않았다. 개인으로 하는 사설 축구팀이다. 애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 팀 지도자가 한다. 나는 경영하는 상황이다. 다 버리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축구협회에서 회사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에 포착된 장면에 대해서는 "경기장에 간 것은 맞다. 사실 경기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몰랐다. (규정 위반)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렇지만 아들 같은 아이들이고, 격려 차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을 왜곡해서 본다면 왜곡된 시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축구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요청한 자료를 다 보내줬다"고 밝혔다.

choiyongjae@jpongang.co.kr



전남체육회 '흥기폭행·폭언' 강진체육회장 중징계 요청

'공무원 흥기 폭행과 폭언'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과 보성체육회장에 대해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가 자격정지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징계 권한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강진체육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보성체육회장은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해당 지역체육회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강진과 보성체육회장의 경우 흥기를 이용해 폭행을 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며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선출을 통해 당선된 체육회장의 징계는 상급단체가 직접 할 수 없어 논의에 대한 결과를 해당 체육회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과 보성체육회가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요구안보다 약한 징계를 하거나 징계위를 열지 않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재심에서도 징계가 약할 경우에는 전남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또는 행사, 예산지원에서 배제하고 회원자격까지 박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체육회는 현재 회장이 구속상태임에 따라 부회장 중심으로 조만간 스포츠공정위를 구성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성체육회는 징계 요구안을 받음에 따라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전남체육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과 종목별 회장, 감독과 코치, 선수들간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선임했으며 각 부서별로 인력을 충원해 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현재 전남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돼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선출직 회장이기 때문에 상급단체에서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해당 체육회에서 요구안보다 약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재심을 한 뒤 전남체육회 자체적으로 해당 체육회에 대한 제재조치 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체육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자치단체장과의 식사자리를 상의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흥기로 폭행하고 반성문까지 쓰게해 구속됐다.

보성체육회장은 예산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보성공무원노조는 최근 보성체육회장을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했으며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다.

말하기 힘든 상처·말할 수 없는 구조, 체육계 성폭력

지난해 심석희의 용기 있는 고백은 '체육계 미투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마음앓이를 해야만 했던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한 맺힌 호소는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말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



2020년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제공=전용기의원실

▲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68.8%, 신고 엄두도 못 냈다

체육계는 뒤늦은 대처에 나섰다. 지난해 1월 25일 쇼트트랙 심석희 사건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며, 비위 신고시 가해자의 징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 은폐 및 축소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분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정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각 종목 단체에서 성폭력 예방과 강한 처벌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은 많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가 '직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성폭력을 행사한 주요 가해자는 코치 등 지도자가 66.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선배(36.6%), 동료(4.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68.8%는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스승과 선수 관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고, 지도자가 가진 권한 때문에 저항이 어렵다는 이유, 성폭력 문제로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뒤를 이었다.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선수, 선배-후배 관계, 지나치게 비대화된 지도자의 권력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현상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 체육계 성폭력,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만연

처벌 강화를 약속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 현황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6개월 2건, 자격정지 1년 2건, 자격정지 3년 2건, 진행 중 3건이 있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출전 및 자격정지 기간 이후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 체육계에 복귀해 피해자와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계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해야 함에도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선수의 인권보다 성적과 실적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온갖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성적이 좋으면 무마되는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들을 낙심하게 만든다.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 피해 선수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스포츠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계속 가해 지도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 실제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6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선수 3명은 코치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이들은 어렵사리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해당 사건을 접한 다른 배구부원들도 각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며 피해 학생들과 의견을 함께 했다.

사건은 코치의 중징계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부원들이 돌연 태도를 바꾸며 새 국면을 맞았다.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에는 배구부 감독과 학부모들의 보이지 않은 입김이 있었다. 코치의 성추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경우 팀이 해체돼 본인들의 진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건을 덮을 것을 종용한 것. 결국 피해 선수 3명 중 2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다른 한 명은 배구계를 떠났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재판장 강영훈)는 1심에서 코치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형을 내렸다. 1심에서 선고한 피해 사실은 인정됐으나, 2심에 앞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새로운 양형요소로 참작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음장계속

▲ 성폭행 근절 위한 새로운 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수사권 등 독립성 확보돼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체육계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취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체육계로부터 분리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으며 지난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연구공동체 인권과스포츠 김동혁 대표는 "기존의 대한체육회가 운영해 온 시스템(클린스포츠센터)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스포츠계 선후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곧바로 가해자귀로 들어가 피해자를 압박해왔다. 이에 피해자는 낙심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며, 신고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점점 더 대처가 어렵게 됐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독립성을 확보해 피해자에 대한 2, 3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책 개선 연구, 예방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 문화와 저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시민적 홍보와 협력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과제를 전달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가해자를 조사 처벌할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사건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해 직접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 변경을 추진 중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관련 체육회에서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직접 조사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증거 확보 등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체육인의 인권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해 성폭력에 대한 체육인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성폭력을 행사하고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스포츠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해 학생선수 때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은폐와 같은 안일한 대응이 현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더 이상의 묵과는 체육계를 퇴보로 의미한다. 한국 스포츠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100년을 위해 이젠 정말 달라져야 한다.

sports@stoo.com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